

2017년 시민이 '매'의 눈으로 찾은 체벌 옹호 표현

때리는 매에 사랑이 담길 수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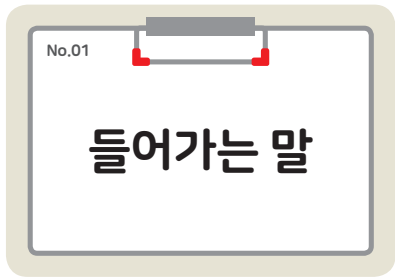


때리는 매에 사랑이 담길 수 없습니다

2017년 시민이 '매'의 눈으로 찾은 체벌 옹호 표현

발행일 2017년 12월 15일
발행기관 세이브더칠드런
주소 서울 마포구 토정로 174
전화 02-6900-4400
홈페이지 <http://www.sc.or.kr>

이 자료는 세이브더칠드런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미디어가 비추는 모습은
우리가 누구이고 다른 사람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 인식하는 데 크게 기여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힘과 약점, 권력, 위험이 무엇인지
정의하는 데 일조하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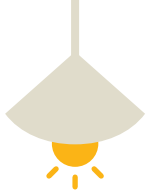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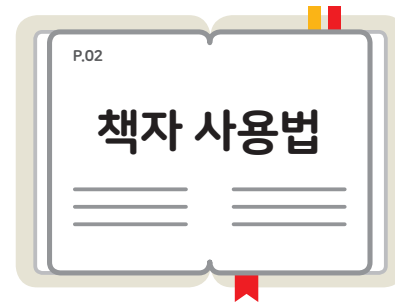
조지 거브너, 미디어 학자

2015년 3월 대한민국 법에서 보호자가 아동에게 신체적으로든 정서적으로든 고통을 주는 것에 위배되는 일이 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아이들은 여전히 '맞을 짓'을 했다고 신체적으로 혹은 정서적으로 고통스러운 체벌을 받습니다. 설령 우리 사회가 아직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했더라도 공공연하게 체벌을 '사랑의 매'로 그리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이제 어느 미디어에서도 가장 폭력을 '집안 싸움'이라고 부르지 않듯 말이죠.

하지만 2017년에도 '사랑의 매'라는 표현은 공중파 방송에 등장했습니다. 방송만이 아닙니다. 지면과 포털에서 접하는 콘텐츠에서도 체벌을 훈육의 한 방법으로 다루는 내용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2017년 대선 기간 동안 정치인들은 어느 진영을 막론하고 '비판을 받아야 한다'는 말을 '회초리를 맞아야 한다'로 대신했습니다.

때때로 '유머를 모른다', '아이를 키워봤나?'는 말이 돌아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최후의 수단이라면 가능하다', '이건 '사랑의 매'야' 라는 속삭임 속에서 우리가 체벌을 내려놓는 게 가능할까요?

이 보고서가 나오기까지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총 23건의 제보를 받았고 25곳에 시정을 요구했으며, 이 중 9곳에서 문제된 표현을 바로잡거나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이 활동에 관심을 갖고 주변에 알려주신 후원자와 시민, 언론 기자 여러분 덕분에 이 활동을 여기까지 이어올 수 있었습니다. 시정을 요구하는 딱딱한 공문을 받고도 '우리가 부족했습니다. 지적해주셔서 고맙습니다'라고 답해주신 분들이 계셔서 용기와 희망을 얻었습니다. 물론 가장 큰 공로자는 제보를 보내주신 제보자 여러분입니다.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문제 표현 찾기 제보 받은 표현물이 어떤 지점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찾아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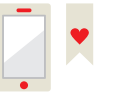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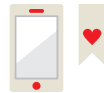
의견 비교하기 여러분의 의견은 제보자, 세이브더칠드런의 의견과 같은가요? 다르다면 무엇 때문에 다를까요?

책자 함께 읽기 이 책자를 친구, 동료와 함께 읽어주세요. 지금 보고 계신 책자와 동일한 PDF 파일을 세이브더칠드런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매의 눈으로 보기 TV와 라디오, 신문, 도서, 인터넷 등 다양한 매체 속에서 여전히 이런 표현이 쓰이고 있지 않는지 매의 눈으로 살펴주세요.

제보하기 이 책자에 실리지 않은, 체벌을 용인하거나 미화하는 표현을 미디어에서 발견하셨다면 아래 방법으로 함께 참여해주세요!

- 1) 세이브더칠드런 <매의 눈을 빌립니다> 홈페이지 www.sc.or.kr/jebo에서 문제를 발견한 표현물을 제보해주세요.
- 2) 제작한 곳의 시청자(청취자)게시판이나 고객센터, (방송물의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문제를 제기해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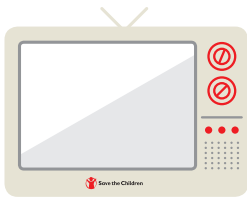


1. 누가 사랑이라 했나 _____ 08

2. 가르침이 아닙니다 _____ 24

3. 맞을 짓을 했기 때문에? _____ 32

4. 정치는 회초리를 좋아해 _____ 38



1. 누가 사랑이라 했나

SBS <미운 우리 새끼> 19회



세이브더칠드런 의견 체벌은 아동복지법을 위배하는 행위입니다. 해당 회 방송에서 다른 출연자의 발언을 통해 체벌의 심리적 상처까지 함께 보여주었으나, 체벌을 문제로 지적하지 않고 오히려 희화하는 내용을 방영하는 일은 법이 제지하는 행위를 조장하거나 방조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체벌은 장단점을 비교하여 허용 여부를 토론할 주제가 아니라 근절해야 할 행위입니다.

체벌은 아이를 사랑해야 할 바로 그 사람이 아이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사랑에는 폭력이 포함되며, 이러한 관계에서 폭력은 정상적’이라고까지 받아들여도도록 만들 위험이 있습니다. 출연자의 발언과 자막은 ‘사랑한다면 때릴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을 유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미운 우리 새끼’는 많은 국민이 즐겨보는 지상파 방송이기에 아동의 성장 환경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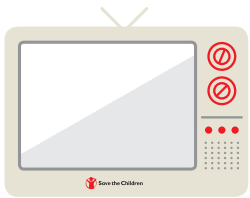
대응과 그 이후 · 2월 9일 SBS 예능본부와 <미운 우리 새끼> 담당 PD 앞으로 항의 공문 발송

· 회신이 없고 수 차례 제작진과 통화를 시도했으나 불가능하여 3월 9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 요청

· 4월 14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70년대 종종 행해졌던 체벌에 대해 이야기한 것으로 체벌을 옹호하는 내용이라고 보기 어려움”이라는 내용의 심의 결과를 통보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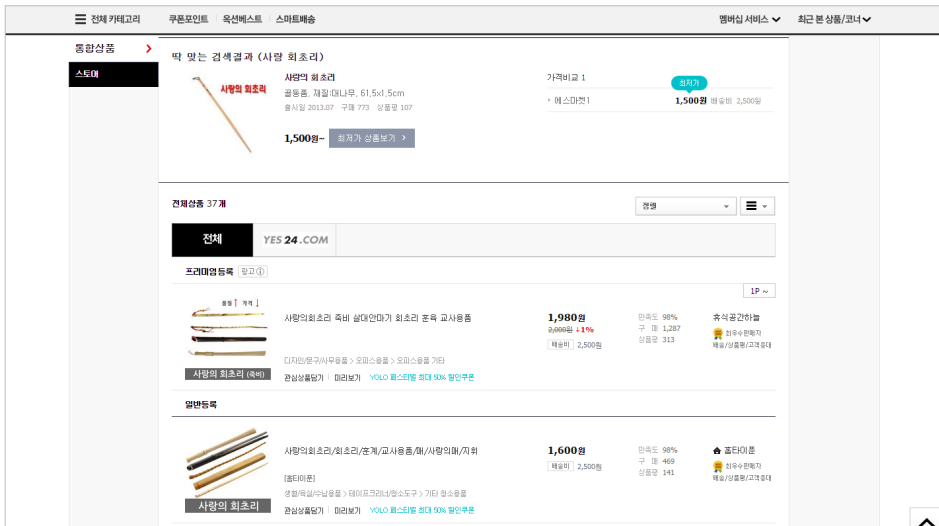
· 더불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유사한 내용에 대해서는 면밀히 모니터링 해나가도록 하겠음”, “해당 방송사에 전달하고 참고토록 하겠음”이라는 내용의 심의 결과를 통보함

미운 우리 새끼	세부 19회, 17년 1월 6일	
종류 방송물	제작처 SBS	제보자 김민희
제보자의 말	미운우리새끼 애청자인데 출연자 중 한 명이 종종 체벌을 긍정적으로 말하는 부분이 나와서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예능이다 보니 그냥 웃으며 넘어갈 수도 있지만 자칫하면 체벌에 대한 고정관념을 강화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1. 누가 사랑이라 했나

회초리 상품 및 판매 문구



세이브더칠드런 의견 '사랑의 매', '사랑의 회초리'와 같은 표현은 폭력을 사랑과 연관짓는 잘못된 표현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여 판매하는 처벌 도구를 접하고 구매하기는 매우 쉽습니다.

판매자들은 제품의 이름으로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넘어 '실제로 때리지 않아도 겁을 줄 수 있다'거나 '감정을 배제하고 사용하라'는 등 마치 특정 조건을 지킨다면 처벌을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것처럼 소개합니다. 그러나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아무리 가볍게 때리더라도, 혹은 실제 물리적인 처벌이 없더라도 협박을 하거나 겁을 주는 것 역시 아이들에게 잔혹하고 모욕적이기 때문에 아동의 권리를 침해하는 일이며 정당화할 수 없는 일이라고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대응과 그 이후 · 2월 21일 상품 제작 업체와 판매 업체 28곳 중 14곳에 이메일과 우편으로 항의 및 시정 요구 공문 전달. 반려동물용 처벌 도구를 판매하는 14곳에 대해서는 동물보호단체 동물자유연대에 협조 요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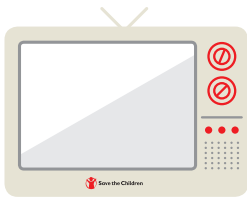
· 이메일과 우편을 받은 업체 중 3곳에서 '사랑의 회초리' 또는 '사랑의 매' 표현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회신

· 2월 21일 동물자유연대, 오픈마켓 업체 대상 '사랑' 표현 중지 요청 공문 발송

회초리 상품 및 판매 문구 | **제보일** 2017년 02월 14~15일, 08월 14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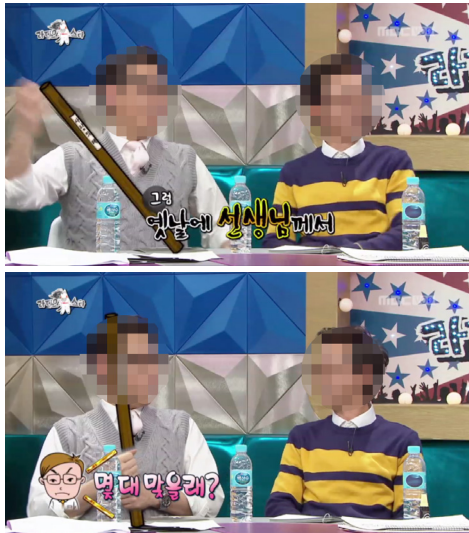
종류 통신물, 제품 | **제작처** 목인산업 외 27곳 | **제보자** 안영서, 천필경, 이혜미, 익명

제보자의 말 제품 이름을 아예 '사랑의 회초리'라고 붙여놓았으니 구매하는 사람이 '이건 사랑의 회초리니까 다른 걸로 처벌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 회초리 상품 설명 문구에 '사랑의 매', '사랑의 회초리' 표현 사용하여 폭력을 정당화하고 있다. 설마 2017년에도 판매를 할지 궁금하여 찾아보니 아직도 있어서 놀랐다.



1. 누가 사랑이라 했나

MBC <라디오스타> 515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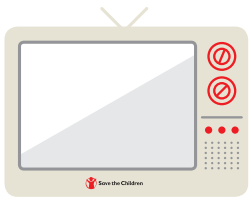
세이브더칠드런 의견 해당 장면은 체벌을 언급하는 출연진들의 이야기에 제작진이 화면에 체벌 도구를 합성하며 '사랑의 매'라는 이름표를 붙였습니다. 체벌 도구라는 점을 시각화하기 위한 장치였다고 하나, 대표적인 공중파 예능 프로그램에서 체벌을 미화하는 표현을 재생산했다는 점에서 많은 아쉬움을 느낍니다.

해당 프로그램이 직접적으로 체벌을 옹호하거나 희화하지는 않았기에 적극적으로 시정 요구를 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대응과 그 이후 · 제작진 대상으로 별도 대응하지 않음

· 3월 세이브더칠드런의 페이스북 계정에 '매의 눈 퀴즈' 콘텐츠로 해당 장면을 제시

라디오스타	세부 515회	
종류 방송(TV, 라디오)	제작처 MBC	제보자 익명
제보자의 말	체벌 경험을 묻는 질문에 합성한 체벌도구에 '사랑의 매'라고 적힘	



1. 누가 사랑이라 했나

jtbc <아는 형님> 65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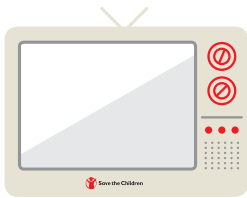


세이브더칠드런 의견 이 방영물에서는 수 차례 반복적으로 ‘사랑의 매’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더구나 해당 예능 프로그램은 배경이나 출연진의 관계 설정을 학교에서 차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게임의 벌칙이 ‘사랑의 매’로 희화되는 경우 교내 체벌뿐 아니라 학생 간 괴롭힘이 폭력이 아닌 장난으로 둔갑할 수 있습니다.

- 대응과 그 이후**
- 4월 3일 jtbc ‘아는 형님’ 제작진에 항의 공문 발송
 - 11월 15일 항의 공문 재발송 및 회신 요청
 - 현재까지 아무 회신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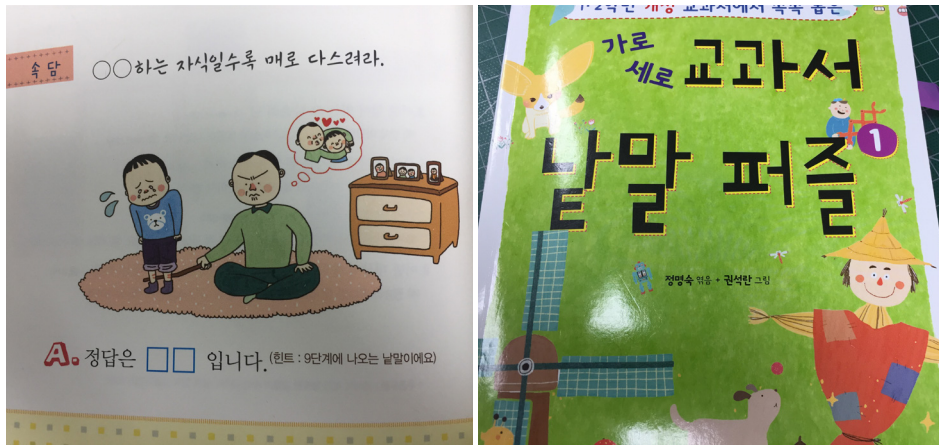
아는 형님	세부 65회	제보일 17년 2월 27일
종류 방송(TV, 라디오)	제작처 jtbc	제보자 익명

제보자의 말 학교를 배경으로 진행되는 예능 프로그램에서 게임을 한 후 벌칙을 ‘사랑의 매’라고 표현했다.



1. 누가 사랑이라 했나

지경사 <가로세로 교과서 낱말퀴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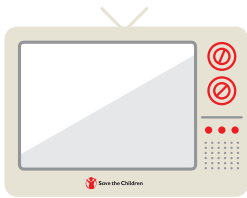


세이브더칠드런 의견 해당 도서는 초등학교 1, 2학년 아동을 주 사용자로 설정한 학습용 도서입니다. 이러한 책에서 '사랑하는 자식일 수록 매로 다스려라'라는 옛 격언을 알려주고, 사랑이라는 단어를 맞추도록 유도하는 것은 아이들이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는 것을 방해하고 사랑을 폭력과 결부하도록 할 위험이 큽니다.

가로세로 교과서 낱말퀴즈	제보일 17년 3월 6일
종류 인쇄물	제작처 지경사
	제보자 박수진

제보자의 말 체벌을 함으로써 자녀를 사랑한다는 인식을 갖게 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 대응과 그 이후**
- 4월 18일 해당 출판사에 항의 및 시정 요구 공문 발송
 - 4월 21일 “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 점을 인정하며, 재판 인쇄 시 해당 속담과 삽화를 다른 것으로 바꾸겠다”, “귀한 지적 감사하다”고 출판사 편집부에서 회신



1. 누가 사랑이라 했나

jtbc <비정상회담> 160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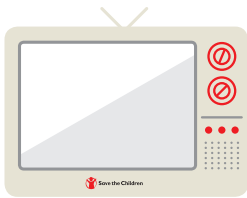


세이브더칠드런 의견 체벌은 권위나 신체적 조건에서 우위에 있는 사람이 아동의 신체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토론을 통해 찬반을 결정할 주제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해당 방송에서 체벌 문제를 두고 토론하는 과정에서 일부 출연진이 체벌을 옹호하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이 내용이 전파를 탔으나, 방송 전체에 걸쳐 제작진이 체벌의 해악을 알리고 추가적인 정보 제공을 통해 체벌을 반대하는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노력하였기 때문에 추가적인 시정요구는 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비정상회담	세부 160회	제보일 17년 8월 1일
종류 방송(TV, 라디오)	제작처 jtbc	제보자 익명

제보자의 말 출연진이 토론하는 과정에서 '사랑의 매'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1. 누가 사랑이라 했나

tvN <인생술집> 35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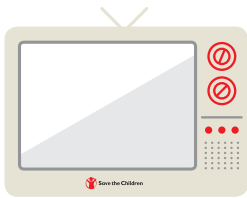


세이브더칠드런 의견 해당 장면은 출연자가 촬영 중간 쉬는 시간에 다른 출연자와 함께 자녀와 있었던 일화를 이야기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출연자가 자녀를 체벌하는 것 자체도 문제이나 이를 편집하지 않고 오히려 ‘사랑의 매’라고 반복하여 자막을 사용한 제작진의 행위는 대한민국의 아동복지법과 국제 유엔아동권리협약에 저촉하는 행위를 미화할 수 있습니다.

- 대응과 그 이후**
- 10월 18일 tvN 고객센터의 서비스를 통해 해당 장면의 문제를 지적하고 편집 요청
 - 10월 19일 같은 내용의 공문을 프로그램 담당 PD 앞으로 우편 발송
 - 10월 19일 tvN 고객센터에서 담당 부서에 내용 전달하겠다는 답변 회신
 - 10월 20일 담당 PD가 전화하여 “제작진이 해당 부분에 민감하지 못했다”며 “다시보기 영상은 요구한 바와 같이 수정하겠다”, “의견 주어서 감사하다”고 회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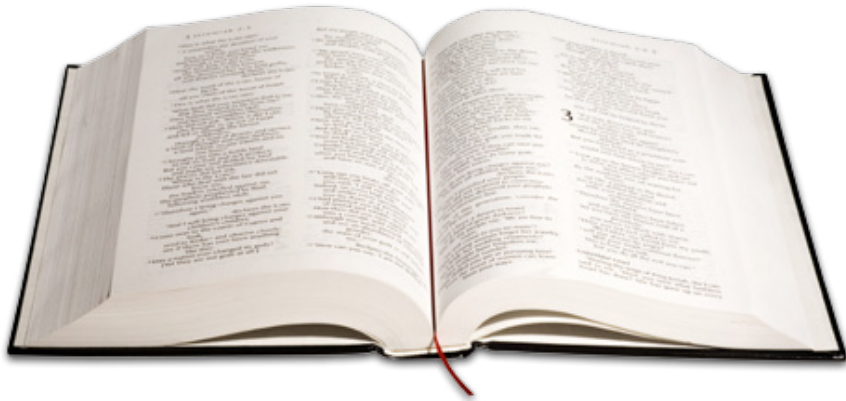
인생술집	세부 35회	제보일 17년 9월 30일
종류 방송(TV, 라디오)	제작처 tvN	제보자 익명

제보자의 말 출연자가 자신의 자녀에게 회초리를 사용한다는 발언을 할 때 ‘사랑의 매’라는 자막이 연이어 두 번 나왔다.



1. 누가 사랑이라 했나

성경



세이브더칠드런 의견 종교의 가르침이 우리의 일상 속 도덕적 판단의 근거가 될 때가 많습니다. 기독교 성경뿐 아니라 다른 종교의 경전과 실천 방법 속에 차별이 녹아든 경우도 있습니다. 전통이나 종교적 이유로 차별을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제보 문구는 성경의 기록으로 가치 판단에 따라 임의로 편집할 수 없기 때문에 항의나 시정 요구를 할 수 있는 표현물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우리가 종교의 기록을 바꿀 수는 없지만 종교 생활을 수행하는 데 따라야 할 가치에 대한 고민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대응과 그 이후 · 종교적 가르침이 아동 인권과 배치되는 경우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나누기 위해 2017년 11월 세이브더칠드런의 <인문학으로 바라본 '차별' 이야기> 강연에 종교 영역을 추가

· 11월 30일 한국종교문화연구소 구형찬 연구원과 함께 '종교문화 속 차별, 어떻게 바라볼까?' 강연 진행

· 2018년 상반기 중 <인문학으로 바라본 '차별' 이야기>의 내용을 담은 단행본 발간 예정

성경	종류	인쇄물	제작처	대한성서공회	제보자	익명
문제되는 표현	아이를 혼계하지 아니치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죽지 아니하리라 (잠언 23:13)					



2. 가르침이 아닙니다

한겨레신문 기사



“백범일지는 올곧은 우리 민족 정서를 그대로 담고 있어요. 그리고 백범 선생뿐 아니라 어머니와 가족들의 기개있는 삶이 잘 그려져 있어요. 어머니인 광낙원 여사가 16살 때 백범을 낳고 투옥에 망명생활 같은 독립운동 하는 과정에서 한결같이 아들을 격려했잖아요. 백범이나 그 어머니 모두 대단하신 분이예요. 저도 이런 책을 마흔이 돼서 읽었다는 게 부끄러웠어요.”

<맹공이 서당>을 보면 눈어·맹자 같은 사서삼경을 가르치면 탄전을 피우다가도 역사 이야기를 하면 눈을 또랑또랑하게 뜨는 악동들이 등장한다. 역사를 뜻하는 그리스어 ‘히스토리야’(historia)는 ‘진실을 찾는 일’이란 뜻이다. 우리처럼 시련이 많은 나라에서 역사는 정신의 뿌리일지 모른다. 그러나 맹공이 서당의 악동조차 훈장님의 회초리 없이도 역사에 몰두하는데 역사관조차 제대로 세우지 못하는 어른들이 못나 보였다. **악동들에게 맹공이 서당 훈장님이 있듯이 우리 어른들에게 매운 회초리를 들어줄 사람은 누구일까.**

세이브더칠드런 의견 제보자가 지적한 바와 같이 해당 표현은 체벌이 아동에 대한 폭력이 아니라 잘못을 바로잡는 교육의 한 방법이라는 점을 가정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우리 사회는 회초리를 자녀의 잘못을 깨닫도록 돕는 도구로 여겨왔습니다. 따라서 체벌은 아동에 대한 폭력이 아니라 ‘사랑의 회초리’라는 통념이 여전히 존재하고, 해당 기자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그 표현을 사용했으리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체벌은 대한민국 아동복지법에 저촉되는 행위입니다. 회초리를 사용하는 체벌을 선의로 그리는 표현은 이러한 행위를 용인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언론사에서 존경받는 인물을 소개하며 이러한 표현을 사용할 경우 독자들에게 체벌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대응과 그 이후 · 3월 6일 한겨레 신문 편집장과 해당 기자에게 공문 발송

· 3월 9일 권은중 기자와 유선 통화, “비유적 표현으로 사용한 것이나 ‘때려서 고쳐야 한다’는 사고가 위험하다는 지적에는 동의한다”

기사	세부 17년 2월 25일	제보일 17년 2월 23일
----	---------------	----------------

종류 통신물(웹사이트)	제작처 한겨레신문	제보자 익명
--------------	-----------	--------

URL http://www.hani.co.kr/arti/culture/culture_general/784110.html

문제되는 표현 “악동들에게 맹공이 서당 훈장님이 있듯이 우리 어른들에게 매운 회초리를 들어줄 사람은 누구일까.”

제보자의 말 회초리로 하는 체벌은 가르침이라는 가정이 깔린 표현이다



2. 가르침이 아닙니다

네이버 지식백과



세이브더칠드런 의견 ‘최후’라고 하나 체벌을 훈육의 수단으로 인정하는 표현은 문제가 있습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물리적인 형태가 아니더라도 협박하는 것이나 겁을 주는 것 역시 잔혹하고 굴욕적인 처벌로서 아동권리협약과 양립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회초리를 실제 사용하지 않더라도 아이에게 ‘때릴 수 있다’는 협박 역시 체벌과 같은 두려움을 주는 폭력적인 일입니다. 이러한 행위를 두고 ‘시늉만 내도 효과를 얻을 수 있다’거나 2세 미만의 어린 아이를 때리는 일을 ‘정신이 집중되어 체벌 효과도 있으면서 아이의 불안감도 덜어준다’고 표현하는 것은 체벌을 정당화하고 나아가 체벌을 권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네이버 지식백과 | **세부** 우리 아이 나쁜버릇 바로잡기 | **제보일** 17년 3월 15일, 17일

종류 통신물(웹사이트) | **제작처** 네이버, 김영사 | **제보자** 지우, 익명

문제되는 표현 네이버 지식백과에 ‘우리 아이 나쁜버릇 바로잡기’란 책이 소개되고 있으나 그 내용이 체벌을 용인하고 있다.

제보자의 말 ‘체벌은 최후의 수단’이란 목차 제목부터 문제가 있음. 사랑의 매로 가장 좋은 것은 회초리라며 회초리를 들고 아이를 위협했을 때의 효과를 제시하고 있다. 이는 체벌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고 있다.

대응과 그 이후 · 4월 18일 네이버 지식백과 고객센터에 시정 요구

· 4월 19일 네이버 고객센터 “원본 콘텐츠를 제공하는 저자 또는 제휴처에서 검토 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있다”고 회신


· 현재 해당 페이지는 네이버 지식백과 서비스에서 삭제됨



2. 가르침이 아닙니다

교육부 질의응답





교육부 학교폭력/성폭력 상담님 답변입니다. 친구

채택답변수 4,681 | 2017.02.14. 11:32

파드너
답변

안녕하세요. 교육부 학교생활컨설턴트입니다.

님이 당한 것이 아동학대인지 알아보기 위해 상담글을 올려주셨군요.

상담글로 보서는 님이 당한 것은 신체적, 정서적 아동학대에 해당됩니다. 다만, 부모님은 님이 동생과 잘 지내고 깨끗하게 씻기를 원하시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우선은 부모님이 말씀을 듣고 정말 부당하고 지속적으로 님이 학대를 당한다고 생각하신다면 국번없이 112로 신고하여 도움이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부모님은 님이 더 잘 되고 정리정돈, 그리고 동생과 잘 지내게 하려는 의도에서 그런 것 같은데 악의는 없어 보입니다.**

저의 답변이 님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부모님과 님이 잘 지낼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교육부 학교생활컨설턴트 17 드림.

세이브더칠드런 의견 상담 신청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사용자가 찾는 인터넷 포털 내 질의응답 서비스를 통해 아동학대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여기에 국가기관인 교육부 소속 컨설턴트가 제시한 글은 비단 글쓴이뿐 아니라 인터넷 사용이 익숙한 학령기 아동 모두에게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발길질을 하고 뺨을 때리며 물건을 던진 부모에 대해 ‘자녀가 잘 되고 정리정돈, 그리고 동생과 잘 지내게 하려는 의도’이며 ‘악의가 없었을 것’이라고 쓴 것은 폭력을 가해자의 시선으로 해석하는 문제가 분명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행위를 신체적, 정서적 아동학대로 규정하고 112로 신고하여 도움을 받을 것을 권했으며, 다른 인터넷 사용자로부터 이미 ‘교육부가 할 말이 아니다’라는 항의를 수 차례 받았기에 추가적인 대응은 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교육부 질의응답 | 제보일 17년 3월 17일

종류 통신문(웹사이트) | 제작처 교육부 학교생활컨설턴트 | 제보자 권채림

제보자의 말 ‘체벌이 과하긴 했으나 악의는 없는 것 같다’ 등 폭력을 정당화하고 있어 국가기관으로서 제대로된 역할을 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



2. 가르침이 아닙니다

****아동발달센터 원장 블로그**



세이브더칠드런 의견 글쓴이는 ‘꼭 필요하다고 느끼는 경우’라는 조건을 달긴 하였으나 이유를 막론하고 고의적으로 아동에게 고통을 주는 처벌은 아동의 신체적 자유를 박탈하는 행위입니다. 또한 ‘꼭 필요하다’는 조건 역시 보호자가 자의에 따라 해석할 수 있는 조항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처벌을 허용하는 조건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매’의 눈을 빌립니다>는 공직자 외 사건에 대한 제보는 접수하지 않았으나, 글쓴이가 “**아동발달센터 원장”이라고 명백히 밝힌 블로거였다는 점에서 독자에게 큰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안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대응과 그 이후 · 9월 26일 글쓴이에게 이메일을 통해 우려 사항을 전달하고 검토를 요청함
· 9월 29일 글쓴이가 문제 소지의 내용을 삭제하고 “매에 대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어 (기존 내용을) 수정했다”고 추가 작성한 부분을 확인

**아동발달센터 H 원장 블로그	제보일 17년 9월 22일
종류 통신물(웹사이트)	제작처 개인
	제보자 최지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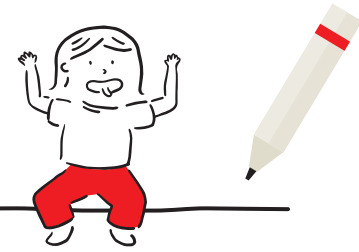
URL <http://ilovecenter.co.kr/221099515203>

제보자의 말 “매는 꼭 필요하다고 느끼는 경우에만”이라는 조건 아래 사용 방법을 알려주어서, 마치 전문 지식으로써 처벌 방법을 전달하는 인상을 준다. 이러한 콘텐츠가 대표 포털의 메인 콘텐츠로 소개되어 널리 퍼지는 것 우려스럽다.



3. 맞을 짓을 했기 때문에?

KBS <슈퍼맨이 돌아왔다> 100회, 201회



세이브더칠드런 의견 해당 프로그램에서는 명절을 앞두고 ‘전통’이라는 명분 아래 주기적으로 회초리를 사용하는 교사의 모습과 여기에 겁을 먹고 일순간 조용해지는 아이들을 비춥니다. 2월과 10월 두 차례 제보 받은 방영물의 내용 역시 이러한 콘셉트로 진행되었습니다.

또한 ‘회초리 맞을 짓’이라는 표현이나 ‘말을 듣지 않는 아이’, ‘효도하지 않는 아이’에게 회초리를 사용한다는 표현을 통해 체벌의 원인과 책임을 훈육자가 아닌 아동에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첫 제보를 받은 콘텐츠는 제보 시기로부터 2년 전의 콘텐츠였기 때문에 당장 대응하지는 않되, 세이브더칠드런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맞을 짓’이라는 표현의 문제점을 시민들에게 알렸습니다. 그러나 해당 프로그램 제작진은 10월에도 같은 형식으로 콘텐츠를 제작하였습니다.

슈퍼맨이 돌아왔다 | 세부 100회, 201회 | 제보일 17년 2월 14일, 10월 10일

종류 방송(TV, 라디오) | 제작처 KBS | 제보자 김정현, 익명

제보자의 말 | 출연한 부모가 아이에게 ‘회초리를 맞을 짓’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두려움을 느끼게 한다.

대응과 그 이후 · 3월 19일 세이브더칠드런의 페이스북 계정에 ‘매의 눈 퀴즈’ 콘텐츠로 101회의 ‘회초리 맞을 짓’ 장면을 제시

· 10월 13일 2차 제보 접수 <슈퍼맨이 돌아왔다> 및 <TV비평 시청자데스크> 시청자 게시판에 시정 요구 사항 게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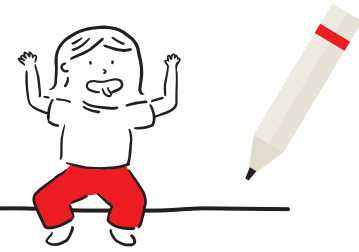
· 10월 14일 담당 PD 앞으로 같은 내용의 공문 우편 발송

· 현재까지 제작진으로부터 회신 없음



3. 맞을 짓을 했기 때문에?

네이버 어린이백과 <(재미있는) 법 이야기>



세이브더칠드런 의견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아무리 강도가 가볍더라도 아동에게 고통이나 불편함을 주기 위해 고의적으로 힘을 행사하는 처벌을 모두 체벌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도서는 주 독자를 어린이로 하는 학습용 만화임에도 불구하고 과외 교사가 ‘꿀밤’을 때릴 때는 모습을 웃기는 장면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체벌을 희화하는 것은 아동으로 하여금 체벌을 폭력의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의 입장에서 해석하고 폭력에 저항하기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해당 도서에는 과외 교사뿐 아니라 아버지가 아이에게 꿀밤을 때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제보 받은 내용뿐 아니라 이 내용을 포함하여 출판사와 네이버 어린이백과에 시정을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응과 그 이후 · 4월 14일 가나출판사에 체벌 희화 표현에 대한 시정 요구 공문 발송

· 4월 18일 네이버 지식백과 고객센터에 시정 요구

· 4월 19일 네이버 고객센터 “원본 콘텐츠를 제공하는 저자 또는 제휴처에서 검토 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있다”고 회신

· 4월 25일 가나출판사 편집장, “다음 쇠에서는 해당 내용을 수정하겠다”, “유머를 인정하지 않는 점에서는 답답하다”고 전화를 통해 회신

· 현재 네이버 어린이백과에서는 해당 콘텐츠의 삽화가 수정되어 서비스되고 있음

네이버 어린이백과 | 세부 ‘(재미있는) 법 이야기’ 내 삽화 | **제보일** 17년 2월 20일

종류 통신물(웹사이트) | **제작처** 네이버, 가나출판사 | **제보자** 제충만

URL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847152&cid=47305&categoryId=47305>

문제되는 표현 어린이용 법 교육 만화 내용 중 아동 대상 폭력을 희화함

제보자의 말 아이가 정당한 질문을 하였는데 공부에 집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꿀밤을 계속 때린다. 그리고 이를 웃기게 그림으로써 사람들에게 체벌을 가볍게 받아들여게 한다.



3. 맞을 짓을 했기 때문에?

SBS <자기야-백년손님> 363회



세이브더칠드런 의견 제보자의 지적과 같이 ‘매를 번다’거나 ‘맞을 짓’이라는 표현은 체벌의 원인과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잘못된 말입니다.

해당 방송에서 이러한 표현이 성인 간에 사용되었기 때문에 아동권리나 아동복지법을 근거로 시정을 요구하기 어려운 지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표현이 다른 관계가 아닌 유사 부자 관계인 장인-사위에서 사용되었기 때문에 아동과 보호자와의 관계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세이브더칠드런은 우려합니다.

대응과 그 이후 · 3월 19일 세이브더칠드런 페이스북 계정에 ‘매의 눈 퀴즈’ 콘텐츠로 문제 장면을 지적

자기야-백년손님	세부 363회	제보일 17년 2월 14일
종류 방송(TV, 라디오)	제작처 SBS	제보자 김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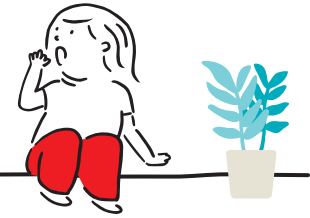
문제되는 표현 ‘인간이 매를 번다’는 표현

제보자의 말 ‘매를 번다’ 또는 ‘맞을 짓을 한다’는 표현은, 매를 맞는 사람이 맞을 만한 원인을 제공하기 때문에 폭력이 발생하는 것이지 때리는 사람은 잘못 없다는 가해자의 입장을 담고 있다. 폭력행위를 한 가해자 잘못이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가 잘못된 것이라는, 가해자를 두둔하고 가해자의 폭력행위를 정당한 것으로 인식하도록 만드는 나쁜 표현이다.



4. 정치는 회초리를 좋아해

문재인 대통령 발언



정치 > 정치일반

문재인 광주서 "회초리 든 마음 알아...두번의 실패는 없다"

윤다빈 기자 | fullempty@newsis.com

등록 2017-01-23 10:20:39 | 수정 2017-01-23 10:47:56



많이 본 뉴스

종합	정치	스포츠/연예
1 '창렬스럽다' 가수 김창렬, 식품회...	2 트럼프, 삼성 美 가전공장 검토 소...	3 배우 이진욱 고소녀 "실제 성폭행 ...
4 '돈가방인 줄 알고'...공구함 훔친 2...	5 특검, 靑 압수수색 진입 협의중.....	6 65세 이상 택시기사 '자격유지검사'...
7 얼마 잠깐 이영애...'김과장' 13.8%...		

세이브더칠드런 의견 전통적으로 우리 사회가 회초리를 자녀의 잘못을 깨닫도록 돕는 도구로 여겨왔기 때문에 체벌을 폭력이 아니라 '사랑의 회초리'라는 통념이 존재합니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 역시 이와 같은 표현을 사용했으리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아동복지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비유로나마 사용하는 것은 공직자로서 사려깊지 못한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시에도 문재인 대통령은 유력 대선후보였기 때문에 이 발언은 언론을 통해 수 많은 국민에게 전파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아동의 성장 환경과 국민의 인식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위치에서 이와 같은 발언을 한 점에 큰 아쉬움을 느낍니다.

문재인 대통령 발언

종류 공직자 발언

제보자 익명

문제되는 표현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국민의 비판을 '자식 잘 되라는 회초리'로 비유

제보자의 말 대통령 후보자로서 국민들에게 느낀 마음을 표현한 것은 알겠으나 자식 잘되라고 회초리를 든다는 표현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대응과 그 이후 · 2월 6일 당시 문재인 전 대표의 업무를 보좌하던 김경수 의원실을 통해 시정 요구 공문 발송

· 2월 9일 비서관을 통해 확인 및 회신 요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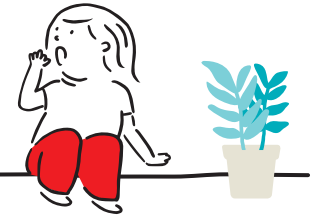
· 11월 15일 김경수 의원실과 청와대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회신 요청

· 현재까지 아무 회신 없음



4. 정치는 회초리를 좋아해

연합뉴스 기사



'맞을 때 먼저 맞자' 靑, 외교장관 후보자 장녀 위장전입 공개

송고시간 | 2017/05/21 15:20



文대통령 후보 시절 "5대 비리자 고위 공직 배제" 발언과 배치
후보자 흠결 先 공개 이례적...역량 중시 인선 시사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청와대가 21일 외교부장관 후보자로 강경화(62) 유엔 사무총장 정책특
보를 지명하면서 검증 과정에서 밝혀진 강 후보자 장녀의 위장전입 사실을 공개해 눈길을 끌었다.

정청은 청와대 인사실장이지만 후보자가 자녀는 1004년 후보자가 미국 유학 중 출생한 성원정 이주...

세이브더칠드런 의견 일상적으로 누군가의 잘못을 비판하거나 지적하는 행위를 '매를 든다'고 표현하고 그 대상은 '매를 맞는다'고 표현하는 일은 자칫 '잘못은 매로 다스려야 한다'는 생각을 지속시키고 나아가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제보 받은 기사를 작성한 언론사 역시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는 점을 되짚어 생각해볼
아야 합니다. 그러나 비단 이곳 한 언론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주 간단한 기사 검
색만으로도 이러한 표현을 사용한 기사는 너무나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이 지면이 언론 관계자와 창작자가 우리의 일상 언어에 숨어 있는
폭력을 찾고 해결하는 작은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대응과 그 이후 · 7월 19일 세이브더칠드런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매를 든다'는 표현의
문제점을 알리는 카드 뉴스 게재

기사 | 세부 '맞을 때 먼저 맞자' 靑, 외교장관 후보자 장녀 위장전입 공개 | 제보일 | 17년 5월 23일

종류 | 통신물(웹사이트) | 제작처 | 연합뉴스 | 제보자 | 김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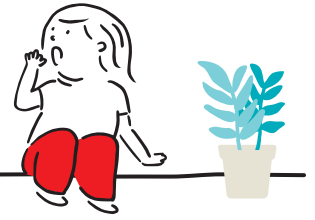
문제되는 표현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 지명자의 장녀 위장전입 관련 기사에서
'맞을 때 먼저 맞자'는 제목을 붙임.

제보자의 말 기사는 청와대가 청문회 전에 장관 후보자 장녀의 위장전입 문제를 먼저 공개한 것에
대해 '맞을 때 먼저 맞자'는 제목을 달았는데, 굳이 매를 맞는다는 표현을 써야 했는지
묻고 싶다.



4. 정치는 회초리를 좋아해

천정배 의원 발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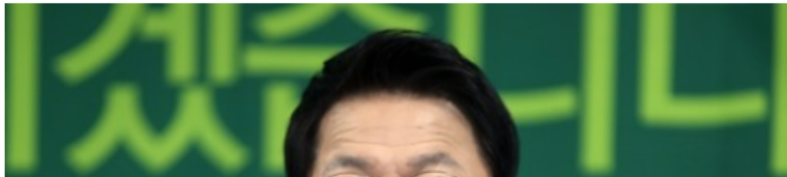
최신기사

천정배 "호남, 안철수 후보에게 사랑의 회초리 들어달라"

송고시간 | 2017/08/23 11:34



(광주=연합뉴스) 정희성 기자 = 국민의당 당권에 도전한 천정배 전 대표는 23일 "호남주민들께서 안철수 후보에게 사랑의 회초리를 들어달라"고 밝혔다.



천정배 의원 발언	제보일	17년 8월 23일
종류 공직자 발언	제작처	연합뉴스
	제보자	익명
문제되는 표현	국민의당 전당대회에서 "(안철수 당시 당대표 후보는) 사랑의 회초리를 맞아라" 발언. 경향신문 외 다수의 기사 다수의 언론에서 게재.	
제보자의 말	사랑과 회초리는 함께 쓰일 수 없는 표현이다.	

세이브더칠드런 의견 다시 한 번 우리는 비판이나 질책, 평가와 같은 단어가 들어갈 자리에 '회초리'를 사용하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천정배 의원의 이 발언은 소속 정당의 행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모든 주요 언론에서 이를 올렸습니다.

천정배 의원만이 아닙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각 후보간의 경쟁이 치열했던 2017년 초에는 소속 진영이나 당을 가리지 않고 주요 대선 후보와 여러 정치인이 경쟁 상대에게 '회초리를 맞아라'고 말했고, 이러한 발언은 여과없이 언론을 통해 전파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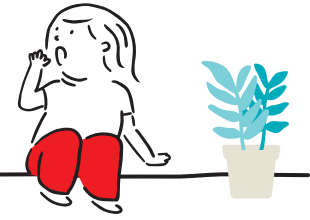
정치인의 한 마디는 기록되고 전파되고 재생산되기 때문에 그 무게는 더욱 무겁습니다. 아동이 함께 사는 이 세상에 그 무게가 미치는 영향을 정치인들은 돌아보아야 합니다.

- 대응과 그 이후**
- 8월 28일 천정배 의원실과 통화 이후 '사랑의 회초리' 용어 사용 중지 요청 공문 발송
 - 현재까지 아무 회신 없음



4. 정치는 회초리를 좋아해

국민의당 홍보물



국민의당 홍보물		제보일 17년 11월 29일
종류 인쇄물	제작처 국민의당	제보자 익명
문제되는 표현	체벌을 미화하는 '사랑의 매' 표현과 회초리 이미지 사용	
제보자의 말	“국민의 마음이 풀릴 때까지”라는 플랭카드의 카피는 마음이 상하면 때려도 된다는 이상한 논리를 담고 있다.	

세이브더칠드런 의견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모든 당사국이 모든 신체적인 처벌과 모든 기타의 잔혹하거나 굴욕적인 형태의 아동에 대한 처벌의 금지 및 이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와 국가들이 취해야 하는 입법적, 인식고취적, 교육적 조치를 신속히 마련할 의무를 강조” 한 바 있습니다. 국민의당은 대한민국 주요 정당 중 한 곳으로서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국민의당은 회초리 이미지를 내걸며 “국민 여러분의 애정 어린 사랑의 매를 부탁드린다”는 보도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이후 각 언론에서는 “대형 회초리 사진 내건 국민의당… ‘마음 풀릴 때까지 사랑의 매 달라’”, “국민의당, 회초리 현수막 ‘사랑의 매 달라’” 등으로 기사를 작성했습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사랑의 매’ 표현을 정당이 주체가 되어 확대 재생산하는 데 우려를 밝히고 시정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 대응과 그 이후**
- 11월 30일 국민의당 홍보위원회와 홍보국, 공보실로 시정 요구 공문 발송
 - 12월 4일 홍보부국장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었으나 수긍할 수 있는 의견이었다”며 “수 일 내로 해당 홍보물을 철거할 것”, “새로 제작하는 홍보물에는 이와 같은 표현이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화로 회신

세이브더칠드런의 긍정적 훈육

2006년 발표된 '아동폭력에 관한 유엔보고서'의 후속 활동으로

세이브더칠드런 스웨덴이 캐나다 마니토바 대학과 함께

'긍정적 훈육'Positive Discipline in Everyday Parenting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긍정적 훈육'은 아동권리를 기반으로 연령대별 뇌 발달 연구 결과를 적용시켜

부모나 양육자, 선생님 등 아이를 매일 만나는 대상 뿐만 아니라

일반 성인들에게도 아동의 감정과 생각을 이해하며

인권적으로 아동을 대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입니다.

2007년 태국 방콕을 시작으로 아시아-태평양, 유럽, 동아프리카,

중동, 캐나다 등 25개국 이상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세이브더칠드런 코리아에서도 부모와 양육 책임이 있는

성인을 대상으로 기본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2018년 하반기부터 심화 교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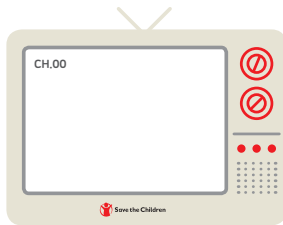
문의

세이브더칠드런 홈페이지 : www.sc.or.kr

대표전화 : 02-6900-4400



세이브더칠드런은 아동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전세계 120여 개 국가에서
인종, 종교, 정치적 이념을 초월해 활동하는 국제구호개발 NGO입니다.



“언어는 우리의 편견, 믿음, 추측의 저장고야.
하지만 아이한테 그 점을 가르치려면 너부터 네가 쓰는 말에 의구심을 가져야 해.”

치마만다 응고지 아디치에, 수필가